

## “민생 악화일로... 경제성장률 하락 우려”

도, 어제 2025년 경제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  
정국 불안 등 잇단 악재에 제주 경제 불확실성 증대  
“소비 진작 운동·골목상권 지원·공공재정 조기 집행”

국내 정치적 불안과 여객기 사고 등 잇단 악재로 제주 경제에 불확실성이 증대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공공재정 조기 집행 등을 골자로 새해 경제정책 추진에 나선다.

제주자치도는 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2025년 경제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은 비상계엄 이전부터 줄기 시작했다가 정치적 불확실성과 여객기 참사로 여행 수요가 더욱 얼어붙으면서 관광 산업 위주의 제주 경제 전반에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여건에 대해서는 “향후 소비심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안정되고, 정부 및 제주도정의 민생경제 관련 재정지출 확대가 가시화될 경우 부진 흐름이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제주연구원 ‘2025년 제주 경제 전망’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속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2.0% 내외로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상생형 내수 활성화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공공 재정의 조기 집행과 지역업체 수주 확대, 소상공인 자금지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탐나는전과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통합해 관광객들의 소비 편의성을 높인다.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하루 5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을 환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배달앱 ‘떡깨비’ 이용 시 건당 3000원의 배달비도 지원한다.

전통시장과 상점이 활성화를 위해 ‘자율상권’을 지정하며, 연간 700회 이상 도심 곳곳에서 버스킹



오영훈 지사가 8일 2025년 경제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을 개최하도록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정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연장하고, 10년 장기 분할 상환 대상을 확대한다.

골목상권 자영업자 대상 긴급 운영자금으로 용자규모 300만원의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을 10일부터 시작한다. 골목상권 도소매업,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자영업자 경영상담 원스톱 채널인 ‘소상공인

지원상담 한 곳에’ 시스템이 생기며,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및 대체 인력 지원도 이뤄진다.

공공부문에서는 지역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60%로 설정한다는 전략이다.

오 지사는 “조기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라며 “연말연시에 진행된 ‘버스킹 있는 날’ 상설 공연을 확대할 계획이며, 각 단체들도 ‘저녁은 밖에서 먹기’ 운동 등 지역 자체적인 소비 진작 운동을 적극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정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설 연휴 주말 포함 엿새 쉰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결정했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계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에 의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됐지만 기대했던 경기 진작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까지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잔뜩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도 상당기간 진행될 전망이다. 불안한 정국 속에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새해 첫 경기진단에서 “대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심리도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제93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행사

### 12일 해녀항일기념탑 일원

제주특별자치도와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회장 김태민)는 오는 12일 오전 9시 제주해녀항일기념탑 일원에서 제93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제주해녀항일운동은 1931~1932년 구좌, 성산, 우도 지역 해녀들이 일제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전개한 독립운동이다. 무오법정사항일운동, 조천만세운동과 함께 제주도 3대 항일운동으로 꼽힌다. 국내 최대이자 국내 유일의 여성 주도 항일 운동으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는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에서 진행되는 추모제를 시작으로 해녀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해녀항일운동 거점 순례 시가행진이 펼쳐진다. 오전 11시부터는 동녕도서관에서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해녀항일운동의 항일 운동 주제 공연, 기념사와 격려사, 유공자 표창 수여, 만세삼창 등이 마련된다.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는 2007년 설립됐다. 일제 강점기 제주 해녀들의 숭고한 항일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전선희기자

## 외국인 환자 불법진료 의료기관 덜미... 4면



겨울에 만끽하는 봄 정취 8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진입로 도로변에 노란 유채꽃이 만개해 관광객들에게 이색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지방자치 30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로운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